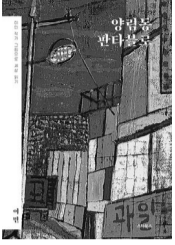


책과 판화 작품으로 만나는 ‘양림동 골목 풍경’

양림동 판타블로

이민 | 스타박스 | 2만원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김넷과’가 올해 첫 전시를 시작했다.

주인공은 정감 어린 골목과 가난한 풍경을 다뤄온 이민 판화작가.

이번 전시는 최근 출판된 남구 양림동 일대 등을 담은 판화 작품 99점과 작가의 짧은 사색이 담긴 산문화집 ‘양림동 판타블로’까지 만날 수 있다.

오는 3월18일까지 김넷과에서 이민 작가의 개인전 ‘양림동 판타블로’가 진행된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양림동을 테마로 한 작품 15점과 제주도를 그려낸 작품 23점 등 총 38점을 선보인다. 전시회에서 볼 수 없는 작품은 책 ‘양림동 판타블로’를 통해 작가의 오프라인 해설까지 더해져 엿볼 수 있다.

판타블로는 라틴어로 ‘넓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이라는 pan이라는 의미와 프랑스어로 ‘타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림, 이미지’라는 의미가 내포된 Tableau가 합성된 말이다. 즉 판화를 통해 회화적 감성까지 담아낸 이민 작가의 회화와 판화를 모두 포함한 작품행위를 말한다.

이민 작가에게 판타블로는 기법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판화는 압력에 의해



이민 판화작가가 오는 3월18일까지 김넷과에서 개인전 ‘양림동 판타블로’를 연다.

복제되고 선과 화면이 평면적으로 보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양화는 작가의 테크닉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색상과 빛의 움직임에 의해 작품이 완성된다. 이런 특징의 판화와 서양화를 접목시킨 판타블로 기법을 통해 이 작가는 판화의 특성인 ‘복제’는 배제하고 날카로운 선은 더 도드라지도록 해 서양화처럼 캔버스에 다채로운

색상을 입힌다. 회화적으로 장르를 넓히고자 한 이 작가의 고민과 독특한 세계관이다.

왜 양림인가? 민주화의 성지 금남로도 아니고 구도심의 시초 충장로도 아니고 자칭 동리단길로 떠오른 동명동도 아니다. 이민 작가에게 양림동은 아련한 생의 기억을 저장하는 공간이다. 아버지와 손

을 잡고 걸었던 길, 형과 짜장면을 사 먹던 거리, 1980년 5월 데모하러 나간 형을 기다리고 찾아나선 골목, 벚꽃과 밤새 어울리던 공간들... 이 작가는 좁은 작은 양림동에 자신을 기록해왔다.

이민 작가는 “양림동에는 죽고 살아가는 스토리가 있다. 어린아이가 묻혔던 묘지, 일제강점기 때 어렵게 살던 근로자 사

택, 5·18 때 계엄군을 피해 좁다란 골목을 따라 도망친 기억들, 오래된 음식점 등 삶의 이야기가 숨 쉬는 곳이다”며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양림 작품들과 전시회, 책을 준비했다. 양림동만의 감성이 떠오르면서 외지인이 많이 찾는 동네가 됐는데 정작 광주시민들에게 새로운 양림을 감상하고 추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 작가는 ‘양림’ 말고도 지역에서 아너소사이어티 예술가 1호라는 타이틀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양림을 그리다 보니 어느새 애착이 커져 양림 작품의 판매 수익을 기부하기로 했다. 양림 판타블로 시리즈 판매액 8300만원에다가 사비 1700만원을 더해 지난해 4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을 기부했다. 이민 작가는 감사한 마음에 이번 책에 구매자 명단을 싣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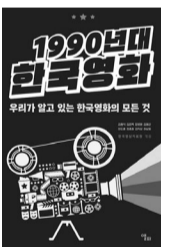
광주 출신의 이민 작가는 1981년 조선대 미술대학에 입학해 서양화를 전공하고 일본 동경 다마미미술대학원에서 판화를 전공했다. 1984년 삼성문화재단 작품소장을 시작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일본 마찌다판화박물관, 영국 대영제국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현재까지 한국, 일본, 미국, 독일에서 개인전 및 초대전을 85회 열었으며 판화와 서양화를 접목시킨 판타블로라는 독특한 기법을 창안해 호평을 받고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ilbo.com

고전이 된 90년대 명화 속으로

1990년대 한국영화

김형석 외 | 엘피 | 2만1000원



90년대를 살아본 사람이라면 저마다 그 시절을 떠올릴 명화 하나쯤은 마음에 품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서편제’는 남도소리에 담긴 한을 담아내면서 한국 영화만의 세계관을 구축했고 개봉 당시 유일무이 공전의 흥행을 기록한 ‘쉬리’는 한국 영화의 새 역사를 썼다. 어느새 아날로그 감성의 정수가 된 ‘접속’은 당시만 하더라도 최신기술인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신인류의 사랑을 감각적으로 보여주면서 X세대의 표본이 됐다. ‘8월의 크리스마스’는 한국멜로의 수작으로 꼽히며 또한 한 번 한국 영화만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그려냈다. 가히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연 1990년대다.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시기로 평가받는 1990년대. 이 시기 한국 영화의 산업적 환경과 작품, 영화인 등을 개괄 정리한 책이 나왔다. 책 ‘1990년대 한국영화’는 90년대의 역동적인 사회문화적 변화상을 분석한 총론부터 장르 스펙트럼, 영화미학, 스타파워, 독립영화, 시네마테크 문화, 스크린쿼터제 등 1990년 10년간 한국 영화의 다채로운 지형도를 그려보인다. 이 밖에도 90년 한국 영화의 결정적 순간을 담은 화보와 영화제작자 14인의 인터뷰를 2부에 실어 당시 ‘영화판’ 밖과 안의 시각까지 입체적으로 조망했다.

1990년대 한국 영화 ‘10년’의 시간은 미국 영화산업의 압박과 충무로 내부의 모순이라는 이중의 도전 아래, 이전의 한국영화사 30년에 맞먹는 변화 속도로 좌충우돌 21세기 한국 영화 시대를 향해 질주한다.

도선인 기자

‘얼굴 없는 국보’의 예술성을 파헤치다

무관의 국보

배한철 | 매일경제신문사 | 2만원



국보·보물로 지정되지 않은 걸작 문화재 35점을 소개하는 책이 나왔다.

현재 국보 354건, 보물 2705건 등 3059건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있지만 당장 국보, 보물이 되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국보급 문화재도 무수하다.

저자 배한철은 국보, 보물이 아니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또는 잊고 있었던 숨은 국보급 문화재를 찾아내 그 속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밝혀내고자 했다.

책에 소개된 한 사례를 들어보자. 1926년 경주역 부근 철로 확장 공사가

벌어졌다. 공사를 위해 저지대 땅을 돋우기 위한 토사가 필요했는데 인근 고추밭으로 쓰이던 둔덕을 채굴하기로 했다. 그 고추밭은 마침 대릉원(경주에 있는 옛 신라의 왕, 왕비, 귀족층의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고분 밀집지역) 인근이었다. 땅을 파보니 토기나 토우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

이때 출토된 것들은 금관, 금목걸이부터 동물형 토기, 인간 생활상을 조각한 토우 등 다양하다. 고대의 실상을 보여주는 역사 문헌은 극도로 부족하는데, 우연히 파헤친 둔덕에서 오래된 과거의 다채로운 표정과 일상을 담아낸 토기, 토우 작품들이 쏟아져 나온 일은 참으로 한숨 돌릴 일이다. 일제하에 있던 시기가 발굴현장에서 무식한 일본인들 손에 보물이 돌아갔다는 일화는 안타깝다.

이외에도 김명국 필 달마도, 강희안 필 고사관수도, 이경운 필 고사탁족도, 왜관

수도원 소장 겸재화첩... 미술교과서를 통해 또는 국내의 전시회, 언론을 통해 일반에도 널리 알려진 이들 작품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높은 대중적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보나 보물로 지정돼 있지 않은 비지정 문화재라는 점이다.

소장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거나, 문화재의 특성, 출처 및 작가 불분명 등 사정은 여러 가지다.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가치가 매우 높지만, 국보, 보물로 지정되지 않은 그런 걸작 문화재가 전국 국립박물관 등에 여전히 산재해 있다.

이 책은 단순히 예술품에 집중하지 않고 제작되고 발견되기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 당시의 시대상을 주의 깊게 들여다본다. 이를 통해 이야기로 문화재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한국사를 이해하는 폭을 넓혀준다.

도선인 기자

초등 사회 진짜 문해력

배성호 외 | 창비 | 1만3000원

문해력은 최근 교육과 관련한 매체나 뉴스 등에 자주 등장하는 화두다. 문해력이나 글을 읽고 그 의도나 맥락을 이해해 내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진짜 나의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책을 읽으며 개념어와 배경 설명을 따라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책은 개념어의 배경 설명을 생략하고 정의만 서술하는 교과서 등으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생 아이들에게 길잡이가 될 것이다.



목요일의 작가들

윤성희 | 공리 | 1만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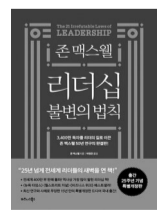
방송작가, 카피라이터, 콘텐츠 기획자 등으로 지내며 다양한 글을 써온 윤성희는 자신의 후배가 일하던 대안교육기관에 글쓰기 교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수업을 시작한다. 어쩌다 글쓰기 교사가 된 저자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 섞인 눈빛을 한 아홉명의 아이들을 만났고 10년 여정이 시작됐다. 이 책은 저자가 10년 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과 글쓰기 수업을 해온 기록이다. 동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은 선생이 아이들과 나란히 길을 잃었던 시간이기도 하다.



존 맥스웰 리더십 불변의 법칙

존 맥스웰 | 비즈니스북스 | 1만8500원

전 세계에서 400만부 이상 판매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리더십 책’. 전설의 고전이 출간 25주년을 맞이해 특별개정판으로 찾아왔다. 이 책은 리더십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명쾌하게 정의하고 뛰어난 리더가 되기 위한 핵심 지침을 간결하게 제시한다. ‘한계의 법칙’, ‘영향력의 법칙’, ‘과정의 법칙’부터 마지막 ‘유산의 법칙’까지 21가지 법칙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해 누구나 쉽게 리더십을 체험하고 익힐 수 있게 도와준다.



메이저리그, 진심의 기록

전훈철 | 시공 | 1만9800원

스포츠 기자 전훈철은 20여년 동안 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 숫자가 아닌 인간적인 메이저리거들의 사람 냄새 나는 진짜 이야기들을 이 책에 모두 담았다. 저자는 그동안 혼자 간직하고 음미하던 이야기들, 야구에만 머무른 어느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존재감 없던 선수들의 뒷이야기들을 잔잔하게 들려준다. 또한 시대를 풍미한 스타들의 흔한 이야기나 대단한 기록들을 나열하기보다 시 행착오를 겪으며 노력한 선수들의 성장 드라마를 보여준다.



전체주의의 심리학

마티아스 데스멧 | 원더박스 | 1만8800원

위기가 닥치면 한쪽에서는 항상 더 큰 권력과 책임을 갖는 큰 정부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온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국가는 이미 확보한 개인 정보를 활용해 감시와 관찰을 강화하고 사회적 강제 조치를 시행한다. 테러나 기후위기 때마다 나타났던 이런 경향은 팬데믹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재현됐다. 저자는 대중에게 “더 많은 감시와 통제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대중은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끝나면 ‘자유’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건 ‘환상’임을 직감한다.

